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9호【루계 제24327호】주체102(2013)년 10월 6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박춘홍동지, 마원춘동지, 허환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리여 일떠서는 현대적인 아동병원건설이 드디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여러차례에 걸쳐 아동병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병원으로 건설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7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였으며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심장깊이 절감한 군인건설자들은 당창건기념일까지 아동병원을 손색없는 병원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해 결사관철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련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연건축면적이 3만 2,800여㎡이고 6층으로 이루어진 아동병원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갖춘 각종 치료 및 처치실, 수술실, 수십개에 달하는 입원실들은 물론 입원한 어린이들이 공부할 교실들과 특색있게 꾸려진 놀이장, 휴식장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의료설비들의 설치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첨단의료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여러 치료실들을 만족하게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집중치료실의 치료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여러 수술실들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할수 있는 방도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은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은 물론 요소요소, 구석구석까지 당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된 병원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설계와 시공, 건재는 3대요소라고 하시면서 당의 지도밀에 훌륭한 아동병원설계가 나오고 전투력있는 부대가 건설을 맡아 시공을 잘하였으며 좋은 건재로 마감하니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건축물이 일떠설수 있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최근에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구강병원과 함께 아동병원도 전문병원으로서의 체모를 훌륭히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이 병원은 우리 당의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아동병원의 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은 어머니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낳은 세상에 전무후무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은인

10월의 하늘가에 우리의 당기발이 휘날린다.

성스러운 그 붉은 기폭에 이민위천의 사상을 력력히 새기고 어제도 오늘도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나붓기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

존엄높은 우리의 당기발을 우러르며 이 땅의 천만군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이 시대의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진다.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입니다!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우리 당을 우러러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어머니, 그 부름의 참의미는 실로 깊고 큰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김일성동지의 당의 본성이며 기본특징이다.》

어머니당 조선로동당!

불러볼수록 한없이 고마운 당의 품에 안겨 존엄높은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우리 가슴부풀고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가슴가득 넘쳐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숭엄히 울린다.

우리 인민들은 당의 품을 어머니품이라고 하면서 당의 령도를 일편단심 받들어나가고있다. 당의 품을 어머니품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의미가 깊고 새길수록 뜻이 깊은 말이다. 당의 품은 어머니품이라는 말에는 자식을 낳아 애지중지 키우면서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며 늘 마음쓰는 다심한 어머니처럼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주며 꽃피워주는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정이 담겨져있다. …

어머니 우리 당!

되새길수록 우리 당을 자식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는 어머니처럼 인민들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빛발쳐온다.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간고한 그 시기였건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도록 하시였다. 곳곳마다에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경공업기지들과 문화휴식터들을 꾸려주시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 제일명당자리 창전거리에 멋들어지게 일떠선 인민들의 훌륭한 살림집들,

그 건축미도 희한하지만 사람들의 심금을 더욱 울리는것은 그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열렬한 이민위천의 뜻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늘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 세상 제일 행복한 삶과 존엄을 안겨주시려 친히 명당자리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새 거리를 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 친히 만수대지구형성안을 여러차례나 보아주시고 하나의 구획형성과 건축창조방식을 두고서도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정하도록 각근히 이르시였다.

숭고한 그 뜻을 받드시여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친히 건설장을 찾으시고 살림집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명실공히 인민들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완공을 앞둔 그즈음 또다시 살림집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곳곳을 돌아보시며 살림방의 크기와 부엌가시대의 쓸모, 창고의 통풍정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리도 각별한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꼭 한평생 인민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여서 사람들은 격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몇해전 삼수땅에 펼쳐졌던 화폭은 또 얼마나 감동깊은것이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건설정형과 함께 철거하는 주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알아보시기 위해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고 삼수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철거세대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철거세대들이 들 집들은 다 마련되였는가 등을 일일이 알아보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발전소건설에 앞서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몇만kW의 전기보다 여기에서 철수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하고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민들의 생활을 당이 돌보고 나라가 돌봐주는것이 바로 로동당의 정책이고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고수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인민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마침내 새집들이하는 경사의 날이 다가왔다. 살림도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멋진 새 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은 물론 주변지역 인민들은 격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어버이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어버이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슬하의 자식들을 어엿이 키우느라 열두자락치마폭에 온갖 시름 안고있어도 그것을 락으로만 여기며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는 어머니,

한없이 친근한 어머니처럼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모든 일군들을 인민의 충복, 심부름군으로 키우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그토록 마음쓰시였다.

준엄한 고난의 행군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자면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일군들과 당원들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인민의 충복이 되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일군들을 참된 인민의 복무자, 심부름군으로 키우신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전하며 불멸의 글발들은 오늘도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우리》라는 말에 대하여 류다른 애착을 가지고 때없이 속으로 곱씹어 외워보군 하는데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 단위 책임일군을 우리 아무개라고 부르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그렇게 불리우는 일군들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자신의 혁명전우이며 진짜동지라고 말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키워 우리 당을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실 마음이 얼마나 불같으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였으랴.

혁명이란 목적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이라고, 인민에 대한 참된 사랑을 위하여 혁명이 필요한것이라고 하시며 우리 당령도사를 이민위천의 뜻으로 엮으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력사를 개척해나가는 어머니당으로 온 누리에 그 존엄을 높이 떨치였다.

이 땅의 천만자식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높은 존엄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세대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나고있다.

지난해 4월 뜻깊은 태양절을 얼마 앞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참으로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데 대한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면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어머니가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듯이 당조직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당의 품에 안아주고 장군님과 정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날의 말씀은 참으로 고귀한 가르치심이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각별한 은정속에 인민들에게 하늘같은 혜택이 베풀어지는 이 땅의 현실은 위대한 어머니당의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가 펼친 이 세상 유일무이의 감동깊은 화폭으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어머니당의 은정이 그토록 뜨겁고 열렬하기에 이 땅의 사람들모두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 당 찬가를 심장으로 부르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라고,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온 나라의 천만군민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 따르며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영원히 어머니당으로 빛날것이며 우리 인민은 그 품속에서 대대손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집행되지 못한 결정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깡그리 바쳐진 위대한 헌신의 한평생, 이민위천의 한평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주체52(1963)년말의 어느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헌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며칠간만이라도 휴식하실것을 결정하였다.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결정이였다.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의 행복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말그대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헌신하고계시였다. 일군들이 휴식하실것을 거듭 간절히 말씀드릴 때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쁜 일이나 끝내고 보자고 하시며 매번 사양하군 하시였다. 그러나 그때만은 일군들과 인민들의 그토록 절절한 념원을 차마 거절할수가 없으시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반승낙을 하시고 어느 한 지방으로 떠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산간마을을 지나실 때였다. 외투를 입지 못하고 길가에서 뛰노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그이의 눈가에 안겨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만나시여 겨울옷입은 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였다. 아직은 나라 사정이 어려웠던 때여서 아이들의 친부모들조차도 자식들이 외투를 못 입은데 대하여 별로 마음을 쓰지 않던 때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겨울이 닥쳐오는 때에 외투도 없이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그날 숙소에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날씨가 찬데 우리 아이들이 외투도 입지 못하고 밖에서 놀더라고 거듭 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농민들의 생활이 넉넉치 못한데 백날을 휴식한들 내 마음이 편하겠는가고 하시며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전후의 재더미우에서 전설속의 천리마를 이 땅에 불러내던 그때 아직은 없는것도, 부족한것도 적지 않았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것을 안겨주지 못하는것이 그리도 마음에 걸리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종내 쉬지 못하시고 다음날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도안의 해당 부문 일군협의회를 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며칠간 휴식하려 이곳에 내려왔다가 몇개 군을 돌아보았는데 아이들이 겨울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있기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쉴수 없었다고 가슴치는 말씀을 하시였다.

그길로 평양에 돌아오시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촌어린이, 학생들의 옷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아이들에게 겨울옷을 무상으로 공급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옷생산전투를 지휘하시였다. 마침내 전국의 농촌어린이들에게 겨울솜옷이 무상으로 안겨지게 되였다.

포근한 솜옷들을 받아안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리도 기쁘시여 만시름을 잊으신듯 환히 웃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라는 인민의 념원이 담긴 결정은 끝내 집행되지 못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을 이렇게 인민들을 위해, 우리 후대들을 위해 깡그리 다 바치시였으며 거기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일 결의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당창건사적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

새집들이를 한 체육인가정들을 방문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이 5일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새 살림집들에 입사한 체육인가정들을 방문하였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훌륭하게 일떠선 체육인살림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국제경기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여 주체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떨친 체육인들에게 안겨주신 은정어린 선물이다.

모든 조건이 훌륭하게,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진 살림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체육인들과 가족들은 우리 당의 하늘같은 은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며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당,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4.25체육단 마라손선수 김금옥, 력기선수 김은국, 체조선수 리세광, 책임감독 김일승, 압록강체육단 력기선수 엄윤철, 평양기계대학체육단 유술선수 설경 등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체육인가정들을 찾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체육인이 된 긍지와 자부심,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는 체육인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일군들은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은정속에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오른 선수들과 감독들을 축하해주었다.

특색있게 건설된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며 그들은 가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고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 창고 등이 번듯하게 꾸려진데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찬장, 옷장도 열어보며 최상의 생활상편의가 보장된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아안은 집주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방문기념으로 가지고온 생활용품들을 넘겨주었다.

체육인가족들과 한자리에 앉아 새집들이를 한 소감도 듣고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인민적풍모에 대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휘날린 우리 체육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 영웅들이라고 하시며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은 정녕 끝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체육인들과 가족들은 선군조선의 체육인으로서 응당 거두어야 할 성과도 값높이 평가하시여 민족의 자랑으로 내세워주시고 또다시 궁궐같은 살림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격정을 터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일군들은 체육인들이 앞으로의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것을 당부하였다.

인민들속에서

우리 당기와 당마크에 깃든 이야기

허 정 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창건과 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가운데는 주체의 혁명적당, 권위있고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상징하고있는 당기와 당마크에 깃든 이야기도 력력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위대성과 귀중함을 심장에 새기고 당의 령도따라 신심드높이 투쟁해나가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당기와 당마크를 볼 때마다 저는 해방직후에 있었던 일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군 합니다.

주체35(1946)년 7월 하순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에서 선전사업을 맡아하던 저를 비롯한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였습니다.

우리가 집무실에 들어서니 수령님께서는 보고계시던 문건을 밀어놓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얼마전에 발표된 농업현물세제와 완공된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한 선전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나서 오늘은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동무들이 긴급하게 할 사업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로 내올 당의 강령과 규약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나는 북조선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로동당을 내올데 대한 문제를 오래 생각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수령님께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온 이후 당을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행하신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북조선에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내오는것은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에서 실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될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새로운 대중적정당을 내오게 되는것만큼 이에 대한 선전사업을 잘하여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이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오는 로동당이 어떤 당인가 하는것을 우리 남북조선의 공산당원들은 물론 다른 근로자당의 당원들 그리고 우리 인민대중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며 세계인민들도 다 알도록 하기 위하여 로동당기발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우리 당이 자기의 기발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마주보며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당기발제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해주시였습니다.

《당기를 만들면 새로 내올 로동당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줄뿐아니라 로동당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게 하는데도 좋습니다.

또한 당기를 만들면 남조선에서 로동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크게 고무할수 있으며 미제와 반동들의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도록 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당의 존엄을 상징하는 당기발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 하여 격정속에 잠겨있는 우리들에게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시급히 당기도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혁명을 하는 우리 당의 사상이 잘 안겨오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정당으로 발전하는 우리 당의 성격이 잘 나타나게 당기발 도안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로동당의 성격과 그 창립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된 우리는 즉시 당기발도안창작에 달라붙어 지혜를 모으고 토론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안에 잠입하였던 일부 이색분자들이 창작가들에게 다른 선진국가에도 당기가 따로 없는데 무슨 그런것이 필요한가 하고 잡소리를 치면서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자들의 압력을 물리치면서 당기발도안창작사업을 밀고나가 마침내 몇가지 도안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는 붉은 기폭에 북조선로동당이라는 글자를 쓴것인데 그것은 당시 군중대회와 시위가 진행될 때 각 기관, 단체들이 자기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을 쓴 기발을 들고나가는것이 상례로 되여있던것을 보고 창안한것이였습니다.

또 다른 도안들은 기발의 붉은 바탕에 노란색의 오각별을 그린것과 마치와 낫을 그린것이였습니다.

당기발도안초안을 올리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작과정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나서 분격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당기제정사업을 시비한자들의 말은 제정신없이 떠벌인 잡소리입니다.

다른 나라 당들이 기발이 있고 없고 하는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당에는 없어도 우리 나라 혁명을 발전시키고 우리 당건설에 필요하면 당기발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은 당사업을 함에 있어서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나 사업에서 우리 당의 주견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 확고하신 어조로 이렇게 강조하시였습니다.

《우리가 당기를 제정하는것은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가 혁명을 시작할 때에도 누가 승인해주는것을 기다렸다가 한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당이 창건된 조건에서야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결해나가지 못할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당에 없어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만들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무엇이 무서워서 제 마음대로 못하겠는가,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건말건 우리 당기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금 힘있게 선언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올린 세가지의 당기발도안초안을 차례로 보시고나서 부족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였습니다.

먼저 붉은 바탕에 북조선로동당이라는 글자를 쓴 도안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시였습니다.

당기를 보면 대중적정당인 우리 당의 성격이 직관적으로 잘 안겨와야 하는데 이 도안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당기발에는 글자로가 아니라 그림형태로 우리 당이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이라는것이 한눈에 확 안겨오게 그려넣어야 한다. 북조선로동당이라고 글로 쓴것은 비단 북조선뿐아니라 남조선까지도 포함한 전조선적인 근로인민대중의 통일적당으로 될 우리 당발전의 합법칙성에 비추어보아도 적당치 않다. …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별을 그린것이나 마치와 낫을 그린 도안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기발에 자주 리용하고있는 너무나도 흔하고 특색이 없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수령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당기는 혁명하는 당을 상징하여 붉은색바탕의 기폭에 당마크를 그려넣는것이 좋겠습니다.

당마크는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단결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당기도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수령님께서는 당기발에 당마크를 새겨넣게 하도록 도안작성의 근본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결국 당기발과 당마크도안을 동시에 창작할수 있게 해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우리는 당기발과 당마크도안창작사업에 착수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기발과 당마크제정사업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창건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간주하시고 여기에 참으로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도안창작이 시작되여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정형을 알아보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시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때까지 만들었던 몇가지 당마크도안초안을 수령님께 올리였습니다.

거기에는 마치를 든 로동자와 함께 밭갈이하는 농민을 그린것, 로동자를 쇠장대를 쥔 용해공으로 그린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기를 모방한것도 있었습니다.

도안들을 한장한장 주의깊게 번져보신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마크는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당의 고유한 성격을 잘 나타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도안의 결함을 이렇게 지적해주시였습니다.

《이 도안들의 가장 큰 결함은 로동자, 농민만을 형상하고 근로인테리를 제쳐놓은것입니다.

당마크도안의 이러한 결함은 동무들자신이 로동당의 대중적 성격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우리들은 그저 도안을 빨리 만들겠다는 욕망만 앞세우면서 거기에 새로 창립되는 로동당의 성격을 반영할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로동자, 농민만을 형상한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할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짧은 생각을 깨우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마크에는 반드시 로동계급과 농민과 근로인테리가 함께 형상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로동당이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한 우리 나라 근로인민대중의 통일적당이라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수 있습니다.》

그러시고는 당마크도안에 형상할 로동계급은 마치로, 농민은 낫으로 표시하며 지식인은 펜으로 표시할수 있으나 우리 식으로 붓을 그리는게 더 좋을것이라고 친히 도안형상의 세부에 대해서까지 가르쳐주시고나서 동무들이 잘 연구해보라고 이르시는것이였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눈앞이 환해짐을 느끼였습니다.

마치와 낫과 붓, 참으로 그것은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데서 가장 생동하고 합리적인 표식이였기때문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심을 안고 당마크도안을 완성하는데 달라붙은 우리들은 며칠만에 새 도안을 다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게 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든 도안에서는 마치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낫과 붓을 그 오른쪽에 순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와 낫의 자루끝과 붓대끝을 아래에 붙여놓았기때문에 얼핏 보면 마치와 낫과 붓을 부채살마냥 펼쳐놓은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떨쳐간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10월중에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당면한 벼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올해농사를 10월중에 결속할 높은 목표밑에 벼베기, 단묶기, 동가리치기, 실어들이기, 낟알털기를 동시에 내밀어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매일 앞당겨 수행하고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로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낟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을걷이적기가 다가올수록 농장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올해농사를 10월중에 무조건 결속해야 한다. 좋은 방도가 없겠는가.)

일군들은 지난해의 농사결속전투를 되새겨보았다. 일정계획을 높이 세운데 맞게 농장원들이 총동원되고 농기계마다 만가동을 보장하면 벼베기, 단묶기, 동가리치기, 실어들이기작업은 얼마든지 따라세울수 있었다. 그러나 낟알털기는 그렇지 못하였다. 탈곡기들의 능력이 제한되여있기때문이였다. 여기로부터 일군들은 벼베기를 끝내고 낟알털기를 시작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이 두가지 영농공정을 동시에 내밀도록 하였다. 결국 벼베기가 끝날 때 낟알털기의 30% 이상을 해제끼도록 작전하였다.

이때 일군들이 잘한것은 종합수확기, 탈곡기마다 만가동을 보장하는 문제를 중시한것이다.

종합수확기와 탈곡기들의 가동률이자 낟알털기실적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은 종합수확기와 탈곡기들의 정비를 예견성있게 진행하는 사업에 품을 넣었다. 이와 함께 책임성높은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종합수확기를 말아 다루도록 하였다. 특히 이들을 작업반마다 고정배치하여 현장에서 종합수확기들을 정상정비, 정상관리하도록 하였다. 결과 벼가을시작부터 종합수확기운전공들이 작업반농사를 함께 책임진 높은 자각을 안고 일정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모두가 종합수확기와 탈곡기들의 리용률이 높아지는데 맞게 낟알허실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대로 실천해가고있는것도 경험적이였다.

어느날 관리위원장 송윤희동무는 어느 한 분조포전에서 농장원들의 벼베기작업모습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그야말로 벼밑둥이 가지런한것은 물론 벼이삭도 한모양새로 놓여져있기때문이였다. 알고보니 이곳 농장원들은 줌안에 세포기의 벼를 모뜨듯 바로잡아 한쪽으로 넘기면서 베고있었다. 만일 벼베기속도를 높이려고 줌안에 많은 벼포기를 후려잡으면 벼밑둥이 가지런하지 못하여 낟알털기에 지장을 준다는것이였다.

옳은 말이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이 작업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벼베기를 질적으로 잘해놓으니 벼단묶기속도가 빨라졌고 동가리치기실적은 물론 낟알털기속도와 질도 높아졌다. 이것은 일군들이 작전을 잘하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의 속도는 물론 질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후 관리위원장은 초급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낟알허실을 막으면서 농사를 빨리 결속해야 합니다. 대중의 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그 방도를 찾아냄으로써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도 전국의 앞장에 섭시다.》

그의 말은 초급일군들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작업반들에 내려가 현실을 새롭게 보면서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나갔다.

결과는 좋았다. 일군들은 낟알털기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는 좋은 방도들을 찾아냈다.

그중의 하나가 동가리치기에서 지난 시기의 좋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도록 한것이였다. 동가리를 칠 때 3개의 벼단으로 밑자리를 만들되 삼각형모양으로 서로 엇갈려놓아 벼이삭이 땅걸면에 닿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그우에 벼이삭이 드러나지 않게 벼단들을 쌓고 마지막에 고깔모양으로 벼단들을 얹도록 하였다. 동가리치기를 이렇게 하면 벼단이 비물에 젖지 않아 낟알털기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었다.

이 문제를 중시한 일군들은 작업반초급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현장에 나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전투를 지휘해나갔다.

농사의 승패가 자기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하고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았다. 그들은 동가리치기를 잘하는데 낟알털기성과가 좌우된다고 하면서 이른아침부터 달려나와 동가리치기를 잘해놓았다. 그리하여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낟알털기를 중단없이 내밀어 매일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대중의 높은 열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언제나 중심고리를 바로 찾아쥐고 현실성있는 전투지휘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다같이 내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황연옥

승부가 나지 않는 경쟁

벼가을걷이로 들끓는 미곡벌에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작업반별, 분조별, 농장원별가을걷이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종합수확기운전공들의 경쟁도 류다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슨 일에서나 경쟁이 벌어져야 남보다 앞서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분발하게 되며 그 과정에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하게 됩니다.》

가을걷이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기계화작업반의 하루사업총화가 끝나자 종합수확기운전공들이 약속이나 한듯 경쟁도표판앞에 마주섰다.

승벽심이 센 운전공들의 뜨거운 열의가 그대로 엿보이는 경쟁도표에는 붉은 줄들이 서로 키돋움하고있었다.

《이번 경쟁에서는 우리한테 못 견딜걸.》

《길고 짧은거야 대봐야 알지 않겠나.》

서로 웃음속에 나누는 말이였으나 그속에는 올해농사결속에서 단연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운전공들의 경쟁심이 비껴있었다.

일욕심에 있어서 조금도 짝지지 않는 이들은 지난 기간 이런 경쟁심으로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알곡증산에 기여하였다.

올해 가을걷이전투를 앞두고 운전공들의 경쟁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런 경쟁심은 대중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가을걷이전투장마다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제4작업반원들은 물뗴기를 앞세워 논판을 말리우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종합수확기의 작업능률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제1작업반의 농장원들도 종합수확기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만들고 논두렁주변의 벼를 베느라 이른새벽부터 포전에서 땀을 흘리였다.

결과 운전공들인 장광춘, 김동빈동무들이 매일 2정보이상의 벼가을을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제4작업반과 제1작업반은 농장적으로 앞자리를 다투게 되였다.

농장의 운전공들은 포전에서 가을걷이가 진행될 때면 치렬한 경쟁을 벌렸지만 작업이 끝난 후에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기술기능수준도 높이고 설비들도 정상적으로 정비해나갔다.

다른 작업반의 멈춰선 종합수확기를 보고는 품들여 구해온 예비부속품도 아끼지 않는것이 이곳 운전공들이였다.

하기에 제3작업반의 운전공 리금철동무를 비롯한 모든 종합수확기운전공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꼭 승부가 나야만 경쟁입니까. 모두가 다같이 1등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을걷이전투에서 작업반들의 승부를 가르기 힘든 원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모두가 혁신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는 집단주의정신, 이런 불같은 마음들에 떠받들려 농장은 전국의 본보기단위의 영예를 계속 떨치고있는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위훈의 기발은 오늘도 펄럭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청년들이 농업근로자들의 앞장에 서서 농사일을 잘하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한다면 바로 이것이 농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입니다.》

며칠전 달밝은 밤이였다.

청년작업반을 찾아 걸음을 재촉하며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단단히 벼르었다.

벼가을과 낟알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부터 매일같이 밤늦도록 벌판을 떠나지 않는 청년작업반원들을 되게 다불렀다세울 작정이였다.

하지만 노래 《조국찬가》를 부르며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일손을 다그치는 청년작업반원들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미곡벌의 참된 주인들인가.

하루에 600평의 논벼를 베여들이고도 성차지 않아 벌판을 뜨지 못하는 최충혁동무, 평양에서 미곡벌로 자원진출할 때 다진 맹세를 지킬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이악하게 낫질을 해나가는 유충숙동무, 아버지의 땀이 스민 땅을 더 기름지게 가꾸겠다며 휴식을 모르고 일하는 리충심동무, 며칠전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에는 탈곡장에 널어놓은 벼알들이 젖을세라 자기들이 입고있던 비옷까지 벗어서 씌웠던 청년들…

그의 눈앞에는 여러해전 청년작업반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이 가슴뜨겁게 펼쳐졌다.

청년작업반원들의 회상기발표모임을 참관하시고 합숙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이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일터를 알뜰하게 꾸리고 생활을 혁명적으로, 락천적으로 조직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우리 장군님, 농업전선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며 온 나라에 자랑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어버이.

그때로부터 5년세월이 흘렀다.

영광의 그날 어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던 많은 청년작업반원들이 오늘은 농장의 어엿한 초급일군들로 자라났다.

세대가 바뀌였다. 그러나 위훈의 기발은 오늘도 힘차게 펄럭이고있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청년작업반답게, 온 나라가 아는 청년작업반원들답게 언제나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영광의 대지를 가꿔가는 청춘들이였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여도 령도자가 알고 인민이 아는 청년작업반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여가려는 그날의 맹세, 그날의 열정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 맹세, 그 열정과 더불어 미곡벌이 더더욱 기름지고 아름다와지고있으니 어찌 청년들이 자랑스럽지 않으랴.

모두 얼싸안아주고싶었다. 하늘높이 떠받들어주고싶었다.

리당비서는 말없이 청년작업반장 리광남동무의 어깨를 툭툭 치고나서 곁에서 벼를 베여나가기 시작하였다.

본사기자

‖수필‖ 미곡벌의 가을풍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알의 낟알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아래 끝없이 펼쳐진 풍요한 논벌, 그속을 기세좋게 누벼가는 종합수확기들, 줄맞춰 높이 솟는 벼동가리들, 아름벌게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농장원처녀들의 웃음비낀 밝은 얼굴…

바라볼수록 정답고 흐뭇한 미곡벌의 가을풍경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자랑높은 《미곡벌의 가을풍경》의 진짜멋에 대해 다 말할수 없음을 얼마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우리가 벼가을전투로 들끓는 제2작업반을 찾았을 때였다.

누군가 한 젊은 농장원에게 한번에 많은 벼포기를 후려잡으면 이삭목이 꺾어지고 벼알이 쉽게 떨어져 낟알손실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타이르는것이였다.

《우리는 미곡벌의 주인들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자구.》

그리고는 그 농장원이 맡은 줄의 벼들을 정히 베여나가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제2작업반장 김성룡동무였다.

미곡벌의 주인, 그의 말을 새기며 벼가을을 다그치는 농장원들을 바라볼수록 생각은 깊어졌다.

미곡벌!

얼마나 뜨겁고 위대한 사랑과 정의 세계가 가득히 실려오는 벌인가.

지금도 귀기울이면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많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농장이며 나의 정든 농장이라고 하시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오고 바라볼수록 농장을 자주 찾아주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이 눈물겹게 어려오는 영광의 땅이다.

하기에 미곡벌주인들의 긍지와 자랑은 그처럼 큰것이며 이 땅에 바쳐가는 사랑과 헌신 또한 그토록 불같은것 아니랴.

그런 뜨거운 정성과 불타는 열정으로 이 가을에도 벼베기와 낟알털기를 다그쳐가는 미곡벌 사람들의 모습이 눈시울적시며 안겨들었다.

하루 2정보의 벼를 수확하는것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휴식시간마저 줄여가며 포전을 누벼가는 종합수확기운전공들이며 별들이 잠든 깊은 밤에도 벌판에 헌신의 땀을 묻어가는 농장원들…

정녕 당의 사랑과 믿음에 알곡증산성과로 보답하려는 이들의 충정과 의리가 넘쳐나는 대지였다. 그래서 미곡벌의 가을풍경이 그처럼 아름답고 황홀하며 날을 따라 더욱더 눈부시게 안겨오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장은영

농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리병철동무

김기준동무

권금숙동무

제3작업반장 리병철동무는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끄는 초급일군이다.

그는 매 영농공정마다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필요한 영농자재들을 제때에 해결해주고있다.

언제나 첫 이랑을 타고 앞장에서 혁신하며 농장원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위해주는 리병철동무를 누구나 따르며 존경하고있다.

제2작업반 종합수확기운전공 김기준동무는 농장이 자랑하는 운전공이다.

그는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륜전기재를 맡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알뜰히 관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매일 2정보이상의 논벼를 수확하면서 당면한 벼가을전투에서 언제나 하루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청년작업반 선동원 권금숙동무를 두고 미곡벌 사람들은 이악쟁이, 일욕심많은 처녀라고 정담아 부른다.

그는 언제나 말보다 실천으로 대중을 선동하며 청년들이 온 나라가 다 아는 청년작업반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미곡벌의 참된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청춘의 열정과 땀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응당한 비판과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최근 박근혜일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소동에 전례없이 미쳐날뛰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분별있게 처신할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모처럼 대화국면에 들어서던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에로 몰아가는 괴뢰패당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고 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응당한 경고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조금이라도 리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의 비판과 경고에 담겨진 깊은 뜻을 새겨듣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일당은 심사숙고할 대신 발끈하여 우리의 충고를 오히려 걸고드는 그 무슨 《통일부 대변인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괴뢰패당은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 응당 할 말을 한것을 걸고 《초보적인 례의도 지키지 않는 비리성적인 처사》라느니, 《상호존중의 정신》이니, 《품격있는 언행》이니 뭐니 하고 떠벌였다.

괴뢰패당은 구린내나는 입에 《례의》니, 《품격》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올리기 전에 저들의 잘못된 행실부터 되새겨보아야 한다.

그래 상대방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온갖 험담과 악담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것이 《례의》있고 《품격있는 언행》이며 《상호주의정신》인가 하는것이다.

박근혜가 앞장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을 떠들면서 존엄높은 우리 체제와 신성한 우리 제도를 비방중상하고 아래졸개들과 어용언론, 전문가들 지어 인간쓰레기들까지 내몰아 우리 체제와 제도를 모해하고 헐뜯는 피이한 《합창》으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도대체 상대방을 전면부정하고 체제대결과 제도붕괴를 그처럼 떠들면서 《상호존중》이니 뭐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릴 체면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지어 우리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혼연일체의 참모습까지 걸고들며 시비질하는것은 오늘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비문명적이고 비도덕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

그것을 정치를 한다는 박근혜가 모른단 말인가.

자기가 내뱉고있는 소리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자극하고 그것이 어떤 후과를 가져온다는것쯤은 알기나 하고 재잘거려야 할것이다.

북남관계의 초보적인 상식도 례의도덕도 모르는 패륜패덕의 무뢰한들이 감히 그 무슨 《례의》니, 《비리성적》이니 하는것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고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박근혜일당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이나 하는듯이 너스레를 떠는것은 더욱 가관이다.

박근혜가 집권하여 한 놀음이란 《신뢰》의 간판밑에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여 불신을 더욱 증대시킨것뿐이다.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인 북남선언들을 백지화하고 체제대결을 공식 선언한 이른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공공연히 내들고 나선것이 바로 박근혜일당이다.

6.15의 산아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그 누구의 《돈줄》로 모독하고 《억류사태》니, 《인질구출》작전이니 하면서 미군특공대까지 들이밀 흉계를 꾸미고 파탄시킨 원흉도 괴뢰패당이다.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개성공업지구재개회담에서 황당무계한 조건을 집요하게 내들고 6차례나 공전시킨 장본인도 다름아닌 괴뢰집권패당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괴뢰패당은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재개사업도 누구의 《돈줄》을 막는다고 하면서 차단하고 모처럼 마련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저들의 《원칙론》의 결과인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며 대결목적에 악용함으로써 무산될수밖에 없게 하였다.

특히 오늘 괴뢰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은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한 북침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하늘과 땅, 바다로 미국의 핵항공모함집단을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이 물밀듯이 쓸어들고있다.

며칠전에는 상전과 주구가 군사적모의를 벌리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이른바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까지 공식 확정발표하였다.

결국 박근혜와 그 일당은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차근차근 쌓는것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소동으로 반목과 대결, 불신만을 가중시키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박근혜일당이 그처럼 념불외우듯 하는 그 무슨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진면모이다.

박근혜일당은 우리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병진로선을 고수할 립장을 천명한데 대해서도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느니, 《북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망발을 줴쳐댔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이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는것처럼 우리의 핵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보검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이다.

미국의 핵위협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우리가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인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 철회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핵무기를 모두 걷어가지고 철수하여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초보적인 상식과 리치도 모르고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괴뢰들이 떠드는 《국제사회의 요구》라는것은 다름아닌 상전인 미국의 강도적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는것 또한 괴뢰들과 같은 미국의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박근혜일당이 쩍하면 누구의 《변화》를 소란스럽게 떠드는것도 미국상전과 함께 우리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에서 돌려세워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교활한 궤변이다.

오늘의 시대적흐름을 똑바로 가려보고 제정신을 차려야 할 당사자는 다름아닌 미국의 하수인으로 더욱더 전락되고있는 박근혜와 그 일당이다.

지금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남조선괴뢰패당을 군사동맹에 더 깊이 얽어매고 《핵우산》을 더 크게 씌워주면서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미국에 리용당하여 염통까지 뽑히는것도 모르고 《한미동맹강화》요 뭐요 하며 상전에게 발라맞추는 남조선괴뢰패당이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누구에 대해 입방아질을 하기 전에 안팎으로 망해가는 제집걱정부터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리고 이 밝은 세상에서 바른말을 못하겠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있는것이 상책일것이다.

박근혜일당은 이제라도 우리의 정당한 비판과 응당한 경고를 똑바로 새겨듣고 부질없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비참한 운명을 면하려거든 처신을 바로 하여야 한다.

주체102(2013)년 10월 5일
평 양

년간생산계획 빛나게 수행

신의주시과자생산협동조합의 종업원들이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년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관리위원장 리영재동무를 비롯한 조합일군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면서 많은 량의 원료를 확보하여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일군들은 원료문제를 푼데 맞게 로력조직과 교차생산조직을 잘하면서 로동자들을 새로운 혁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혁신의 불길은 생산의 앞공정을 맡은 가공작업반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작업반장 최정실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제분실수률을 높여 매달 생산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파자1, 2작업반과 사탕작업반의 종업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 매일 계획을 200%이상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조합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공무작업반의 기능공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어린이과자형타를 개조하고 반죽기날개를 새로 제작하여 종전보다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파기자 송창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간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서 사 시

행 복 의 집 사 랑 의 품 이 여

-평양학생소년궁전창립 50돐에 드린다-

명 준 섭

해솟는 아침에도
별이 돋는 저녁에도
때없이 오르던 장대재
어이하여 이 아침엔
이 가슴 그리도 뜨거워지는것이냐

그대의 기슭에서
어린 날의 꿈을 안고
파란색 소조원증에 두볼 부비며
첫걸음 익히던 그날부터 장장 반세기

세월은 흘러 멀리 왔어도
개관식에 나오신 수령님께
소년단넥타이를 매여드리던 그날이
어제런듯 오늘이런듯…

걸을수 없어
그냥은 걸을수 없어
저 밝은 창문들을 바라보니
수령님과 장군님의 환하신 미소
해빛으로 넘치누나

뵈올것 같아
줄지어선 수삼나무
행길가 저 너머
문득 원수님 뵈올것 같아
걸음걸음 숭엄해지는 마음

하늘을 보랴 땅을 보랴
장대재 이 언덕
작은 꽃잎 하나에도
그 사랑은 줄줄이 흐르나니
그래서 이 가슴엔 노래가 터지는가

이 언덕에서
몸도 마음도 자라
이제는 귀밑머리에 흰서리 얹은 시인

못 잊을 그날들을 그리며
끝없이 밀려오는 사랑의 물결에
삼가 붓을 적시여
내 노래하노라
평양학생소년궁전이여

× ×

이렇게 모여왔구나
어린 날의 벗들아
여- 철남이
아니 장령동지
나도 거수경례 한번 해보세나

어제날의 항공소조원
장대재 저 푸른 하늘에
하얀 모형기 날리며
정말 꿈도 많았지

옳지 순임선생
비날론방사시험도 척척 한다고
뽐내며 뻐기던 단발머리소녀
그 화학소조원이 아니더냐

오늘은
번쩍이는 박사메달이
교단에서 흘러간 한생을
다 말해주네구려

누구는 로력영웅
누구는 이름난 혁신자
어찌 다 말을 하랴
이 언덕을 내려
조국의 무성한 숲으로 자라난
수천수만의 아들딸들을

한없는 고마움에
손에손에 꽃묶음 정히 들고
한걸음 두걸음 수령님 우러러
삼가 옷자락 여미니

안겨오누나
해방된 조국땅
장대재 이 언덕에서
착공의 첫삽을 뜨던 그날이

지난날
지지리 못 살고 천대받던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왕이 되여 왕들이 사는 집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릴줄
어찌 꿈엔들 생각했으랴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큰 회의장 하나만이라도 짓자고
온 나라 인민들이
지성으로 올린 희사금으로
우리 수령님
아이들 궁전부터 지어주셨나니

명당중에도 명당자리
장대재 이 언덕에
사랑으로 터를 닦고
사랑으로 지은 집

하루하루 수령님 모실
개관식의 그날만을 기다렸건만
미제원쑤들의 폭격에
재가 되여 흩날릴적에
조국은 얼마나 아픈 가슴 달래였던가

허나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선
복구건설의 설계도에
제일먼저 아이들의 궁전이
점과 선으로 이어졌어라

보란듯이
온 세상이 보란듯이
아이들의 궁전을 다시 짓자고
크게 더 크게 장대재가 그득하게
몇번이나 고쳐 그린 설계도

우리 수령님
몸소 설계가도 되시고
시공주도 되시여
낮에도 밤에도
이 언덕에 오르시여
얼마나 많은 로고를 바치셨던가

쩡! 쩡-
얼어붙은 암반을 까내던
그날의 메질소리 들려온다
우리 장군님 목고채를 메시고
헌신의 땀을 바쳐가시던
그 모습이 안겨온다

말해다오, 장대재여!
소년궁전이여!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 흘리신 땀방울은
무리등의 천만구슬이 되여 반짝이고
그날들에
우리 장군님 바치신 로고는
대리석주단이 되여
황홀하게 펼쳐진것이 아니더냐

그렇구나 나의 벗들아
우리 함께
추억의 노를 저어
어서 층계를 오르자

너와 나 꽃잎같은 발자욱
층계마다 촘촘히 새기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릴적에
어찌 다 알았으랴
수령님의 은혜 장군님의 사랑을

- 여기서 수령님을 뵈웠다오
누군가 조용히 하는 말

- 잊을수 없어요
어느 여름날
소조실에 들리신 수령님
대공전화기도 척척 조립하는
나어린 소녀, 제가 대견해
웃으시며 말씀했어요

- 내가 저기 서볼테니
나와 함께 전화를 하자
들려오누나
우렁우렁하신 그날의 음성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끝없이 울려오는 음성

어찌 생각이나 하랴
수령님께서 나어린 소녀와
주고받으신 그 전화
그것은 정녕 장대재 이 언덕에
영원히 새겨진
사랑의 전설이 아니더냐

발걸음 못 떼는 그날의 소녀
내 걸음도 붙잡누나
앞방에도 뒤방에도
궁전소조실마다
그 사랑은 꽉 차고넘쳐
내 정녕 걸음을 뗄수 없구나

어디냐
신바람난 꼬마들의 탁구경기
똑 또그르- 굴러나는
하얀 탁구알까지
우리 수령님
허리굽혀 집어주시던 곳은

어디냐
꼬마목금수를 기다리시며
비내리는 한지에서
우산을 받으시고 우리 수령님
오래오래 서계시던 곳은

그리워 그리워 사무치는 마음
누군가 조용히 외운다
- 수령님 늘 지니고 다니시던
그 작은 수첩을 잊을수 없어요

아, 어찌 잊을수 있으랴
보풀인 그 수첩엔
전국아동예술축전으로
엄마품을 떠나온 꼬마무용수
나어린 그 소녀의 생일날까지 적혀 있었거니

수령님 보내주신
생일선물을 받아안고
아버지! 아버지-
울며 흐느끼던것이
어찌 그 산골 소녀만이랴

그것은 너와 나
모두가 받아안은 생일선물
그래서 울며 웃던
우리들이 아니였더냐

그처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기쁨이 되라고
그리도 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

노래도
제일 고운 노래를 골라주시고
악기도 제일 좋은 악기를
선참으로 안겨주시지 않으셨던가

잊지 못할 그 나날
피아노에 아름다운 선률을 실어
수령님의 재청박수까지 받던 아이들
알기나 했던가

피아노련탄을 하면
수령님께서 기뻐하실거라고
손수 건반을 눌러보시며
음색까지 가늠해주시던 그 사랑을

깊어가는 추억의 물결에 이 몸을 실어
흰구름을 휘여감는
천문소조실에 날아오르니
또 누군가 뜨거움에 목메는 소리

- 그때에는
나라의 큰 천문대에도
이런 천체망원경이 없었소
그런데도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먼저 주셨소

저저마다
쓸어보는 천체망원경
그 망원경에
눈길을 모으던 철남이
그는 늘 장군님 모시고 동행하던 일군
깊은 생각에 잠겨 이야기하누나

이 망원경에 눈을 대이니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 먼저
이 땅에 천갈래 만갈래로 뻗어간
장군님의 전선길이 어려온다고

쩡- 가슴을 치는 이야기
내 붓을 들어 달리며
철남이와 함께
그 전선길을 걸어보련다

× ×

얼마나 어려웠던가
눈비에 젖은 야전차가
그대로 집무실이 되고
그대로 침실이 되여
쪽잠마저 그리웠던
고난의 행군 그 나날들은

장대재언덕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늘이면 오실가
래일이면 오실가
그리도 손꼽아 기다렸건만
장군님께선 전선에 계시였다

얼마나 아이들곁으로
오고싶으셨으면
달빛이 부서지는 전선길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소년궁전소조원들이 올린
소박한 노래도 들으셨으랴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싶으셨으면
차창을 스치는
한줄기바람소리에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는 소리같다고 하시며
서둘러 신들메를 조이셨으랴

그날도 아버지장군님
밤에도 깊은 한밤중
천리전선
먼먼길에서 돌아오고계시였어라

장마비에 불어난 강물
황토물이 사품치며 파도치는 대동강기슭
소년궁전이 마주보이는 둔덕에서
승용차를 멈추시여라

- 소년궁전에도 불이 꺼졌구만
너무도 아프게 울리는 말씀
너무도 가슴을 치는 그 말씀
내 어디서 또 들었던가

수도의 깊어가는 밤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수령님
불꺼진 궁전의 창문들을 바라보시며
뜨겁게 하시던 그 말씀이 아니던가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자는것도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소년궁전의 불빛만 보아도
하루피곤이 다 풀린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
이 언덕에서 내 다시 들었나니

-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년궁전 불빛만은 지켜줍시다
저 불빛을 위해
우리가 혁명을 하고
건설도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 받아안고
하늘도 울었다
대동강도 목메여
파도치며 달려와
그이의 야전복자락에 매달려
끝없이 어리광쳤다

그밤으로
나라의 비상전력망에
사랑의 전류는 흘러
소년궁전 창가마다 밝게 빛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운 가슴 들먹이였던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장군님 따라 천만리
모진 고난의 언덕도
웃으며 넘던 이 나라 인민이였어라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하늘땅도 꽁꽁 얼던 그 새벽
서둘러 전선길 떠나시던 장군님
한 일군에게 남기신 당부

- 이 추운 날에
아이들 궁전에까지
온수를 보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가야금을 타고 바이올린을 켜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온수를 보내지 못하면
전기난방이라도 해줍시다

아, 이제 가셔야 할 길은
아득한 천리
대소한의 강추위가
언땅을 물어뜯는 길

색바랜 야전솜옷
꿰기밥 몇덩이로
먼길을 떠나시면서도
아이들 생각으로
발걸음 못 떼시는 우리 장군님

쥐면 꺼질라
불면 날을라
그처럼 사랑하는 아이들
애지중지 가꾸시는 미래

그 미래를 위해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태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 동무들은 나를 보고
자꾸만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 락입니다

오, 이것은
장군님의 인생관
절대불변의 후대관
한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한
그 미래관이 아니였던가

그렇다 우리 장군님
이 신념을 안으시고
얼음 깔린 령길도 넘으셨고
사나운 파도도 헤치셨나니

모진 광풍이 몰아칠수록
날리는 야전복자락으로
아이들을 더욱더 감싸안으시고
장군님은 오시였다
이렇게 아이들곁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잊지 못해라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자의 끝없는 긍지로
가슴을 쭉 펴고
21세기 새해를 맞이하던 그 아침

- 새 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입니다
소년궁전과 그 부속학교들에
콤퓨터수재양성기지를 꾸려줍시다

쿵! 가슴을 치는 장군님 말씀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평범하게
집무실 한방에만 울렸어도

세계는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최첨단의 과학으로
이 행성을 굽어보며
높이높이 솟아오르는 김일성조선을

소년궁전으로
소년궁전으로
장군님 보내주신
최상급의 콤퓨터들이
소조실마다 꽉 메우고

온 나라 곳곳마다에서
장군님 불러주신 나어린 수재들이
장대재 이 언덕에서
탐구의 첫걸음 떼였나니

세계와 겨루는
프로그람경연에서
소년궁전꼬마들이
첫 자리를 차지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축하편지까지 보내셨으랴

한없는 뜨거움에
내 다시금
편지의 구절구절을 새겨보면
만경봉기슭에
새 궁전이 솟아오르던 날
수령님 보내주신 친필
못 견디게 가슴을 울리여라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것입니다.》

아, 수령님의 높으신 뜻
그대로 장군님 사랑이 되여
이 땅엔 얼마나 희한한
새 세상이 펼쳐졌던가

CNC기계바다
무인화 원격화된 공장
콤퓨터건반을
피아노건반처럼 두드리며
무엇이든 마음먹으면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

그렇다 장군님은
조국의 먼먼 앞날까지
다 안으시고
언제나 미래에 사셨나니

한없이 위대한 그 품에 안기여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둥으로
네가 자라고
내가 자라고
우리 조국이 자랐다

× ×

숭엄한 정적이 깃든 천문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몇번이나 눈굽을 닦으며
층계를 내리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손풍금소리

- 저 소조실엔
내 손녀가 있다오
김정은원수님 보내주신
손풍금을 탄다오

손풍금에 실리여
끝없이 울려오는 노래
어이하여
이 마음의 금선을 울려주느냐

…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어제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르던 노래
오늘은 손자손녀들이 부르는 노래
자자손손 그 품에 안기여
끝없이 울려가는 행복의 노래

나의 벗들아
이 노래를 부르며
대를 이어 받아온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목메여 목메여
이 층계를 못 떠나느냐

보아라 장대재 이 언덕에서
저기 저 당중앙창가
태양이 빛나는 그곳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계신다

수령님의 뜻으로
장군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가꾸시며
잠도 휴식도 잊으시는 김정은동지

장대재 이 언덕을 지나실 때마다
아이들의 노래
랑랑한 웃음소리 들으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원수님

어이하여 그 밤만은
당중앙창가에서
장대재언덕을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가

쏟아져내리는 별무리 별무리
은하수 흐르는 저 너머
그이의 눈길이 가닿은 곳은
소년궁전 창가마다 흐르는 불빛
그 불빛을 바라보시는
원수님 안광은 젖어드신다

어느 봄날엔가
소년궁전 넓은 홀을 거니시며
우리 수령님 조용히 부르시던
《세상에 부럼없어라》
그 노래가 불빛속에 흐르는가

저 불빛을 바라보시며
눈보라 세찬
전선길을 떠나시던 장군님
금시라도 다시 뵈올것만 같아

장군님 맡기고 가신 아이들
품어주고 가꿔줘야 할 미래
천만년 무궁할 그 미래가
끝없이 달려와 안기는듯

한없는 그리움에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는데
천천히 창가를 떠나신 원수님
한 일군을 부르시여라

-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잘 꾸리는 것은
장군님의 뜻입니다
학생소년들의 과외교양거점답게
당에서 잘 꾸려줍시다

이렇게 밝아온 아침이였다
수령님 백두에서 안고오시고
장군님 선군혁명 천만리길에서
품들여 키워주신 미래

그 미래를
온 세상이 보란듯이
금방석에 앉히여 둥둥
키워주고 내세워주고싶으신 마음
그 마음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
당중앙청사를 나서시였나니

들려온다 발걸음소리
장군님 걸으시던 전선길
높고낮은 산발
눈덮인 그 길에서
쿵쿵 울려오는 발걸음소리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천만군민과 동지가 되신 원수님
그 발걸음
언제 한번 멈추신적 있었더냐

원쑤와 총부리를 맞댄 최전연초소
험한 령길에도 오르시고
날바다에 작은 목선 하나로
섬마을초소도 찾으시고…

그 길에서
아이들부터 먼저 품에 안으시여
하늘높이 추켜드시며
해빛같은 미소
온 누리에 보내시던 원수님

첫돌 맞는 아기에겐
생일선물도 안겨주시고
새집들이경사엔
학교간 아이까지 기다리시며
귀중한 시간도 다 바치신분

누가 말했더냐
어머니의 사랑은
북극의 얼음장도 녹인다고
허나 원수님의 사랑은
천만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치고도 남는 사랑

광명성절 그 아침에
눈물의 얼음장을 깨치며
장자강기슭에
솟구쳐오른 야영기발

그것은 정녕
태양의 빛과 열에도 비길수 없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였더냐

하기에 설날아침
원수님 펼쳐주신 설맞이
소년궁전무대에 울려퍼진
아이들의 설노래는
그리움의 노래만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끝없는 행복의 노래
가슴마다 샘솟는 충정의 노래였나니

잊지 못해라
장군님 생각에 때없이 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물도 다 닦아주시며
원수님 마련해주신
소년단명절 그 아침은
얼마나 들끓었던가

이 땅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특별렬차 특별비행기로 부르시여
나라의 대경사로
아이들의 모임도 마련해주시고

소년궁전소조원들이 올리는
소박한 시랑송도 들어주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 담으시고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주시며
끝없는 축복을 보내주시던 김정은원수님

앵두볼에 보조개 파며 노래를 부르는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잘한다고, 몇번이나 잘한다고
엄지손가락 높이 들어주실 때
이 가슴 뜨거운 눈물에 젖었나니

첫자리,
새집 하나 지어도 첫자리
새 공원 하나 꾸리여도 첫자리
새 공장 하나 세워도 첫자리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의 첫자리
행복의 첫자리에 세워주시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

그대로 우리 당의 정책이 되고
그대로 국가의 시책이 되는
아이들의 나라 아이들의 왕국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나라 사회주의

알면서 받는 사랑보다
모르면서 받는 사랑이 더 크기에
때없이 목메이는
우리들이 아니였더냐

정녕 알고나 있었던가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가
열리던 날
원수님께서 대회장에까지 나오시여
응석받이 꼬마들의
토론까지 하나하나 들어주실줄은

영광의 주석단 그 한복판으로
토론을 마친 소년을 부르시여
한품에 꼭 안아
두볼도 다독여주시며
소곤소곤 귀속말도 다 들어주실 줄은

하기에 온 나라 집집마다에
저절로 터져오르는
조선로동당만세소리
노래처럼 울려퍼지는것 아니더냐

다는 몰랐어라 그날에
어이하여 우리 원수님
소년궁전마당가에서
나어린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셨던지

수령님의 사랑이
장군님의 사랑이
해빛으로 넘치는 궁전
이제 커서 어른이 되여도
영원히 잊지 말라고
나라의 왕들이 자라는 궁전을
그대로 배경에 담으신것 아니더냐

그처럼 다심하게
그처럼 열렬하게
그처럼 뜨거웁게
아이들을 사랑하시는분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열과 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가꾸시는
김정은원수님 같으신분
세상에 없어라

그렇다 원수님께서
후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천만년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히 변치 않을
백두에 지심깊이 뿌리내린 사랑

그 사랑으로
혁명의 대는 꿋꿋이 이어지고
그 사랑으로
력사는 줄기차게 흐르고

그 사랑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백두산대국의 새 아침은
이렇게 밝아왔어라

× ×

엄마품을 떠나는 아기새같이
작은 날개 저으며
장대재 이 언덕을 떠나갔던 아이들
이제는 억센 날개 퍼덕이며
그대 품에 찾아왔나니

수고도 많았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이여
그대가 걸어온 50년
장난세찬 아이들까지 다 말아 키우며
바친 정성인들 얼마였던가

밤새도록 꺼지지 않던 그 불빛들은
늘 자식들의 앞날을 두고
시름많던 내 어머니
그윽한 눈빛이 아니였던가

그리도 수고많은 그대
사랑의 집 소년궁전에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으신 마음
우리 장군님 달아주셨구나
수령님 존함으로 빛나는 훈장

한없는 고마움에
쓸어보고 안아보는 이 가슴속엔
온 나라 곳곳마다 일떠선 소년궁전들이
밝은 창문을 연다

이제 그 창문들이 미여지게
원수님 펼쳐주신 희망의 하늘로
솟구치며 나래쳐오를
내 나라의 미래 내 조국의 앞날은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이냐

노래를 부르자
어린 날의 벗들아
늙음을 탓함이 없이
아이적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행복의 집 사랑의 품이여
그 품은 영원한 태양의 품
그 품에 안기여
수령복, 장군복
대를 이어 누리는 영광의 노래

울려가라 노래여
세월의 한끝까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후손들이
김정은원수님 높이 모시고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며
온 세상을 향하여 웨치는 노래
아- 아- 세상에 부럼없어라!

꿈같은 이 사랑, 이 행복 승리의 금메달로 길이 전해가리

새로 일떠선 체육인살림집에 차넘치는 격정과 맹세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감격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인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체육인살림집에 다함없는 고마움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보답의 맹세가 끝없이 메아리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앞으로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해주고 우대하여주는 사업을 더 잘하여 모든 사람들이 체육인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일떠선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우리와 만난 집주인들은 생소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체육인들과 그 가족들이였다.

세계여 부러워하라, 선군조선의 체육인들을

새집들이경사로 들끓는 체육인살림집을 찾은 우리가 제일먼저 들린 곳은 3층 2호집이였다.

3중아시아녀자마라손선수권보유자 김금옥선수가 받은 집이였다.

어서 오라고 손잡아 이끄는 어머니 김동실녀성을 따라 들어서니 궁궐같은 새 집이 눈앞에 펼쳐졌다.

넓다란 공동살림방을 비롯한 여러칸의 살림방들과 편리하게 꾸려진 부엌, 식사실, 세면장, 여러개의 위생실, 창고…

살림방들에 갖추어진 랭온풍기와 책장, 침대, 양복장을 비롯한 질높은 가구들, 부엌과 식사실의 현대적인 가시대, 찬장, 고급식탁과 의자, 사시절 더운물로 목욕도 할수 있게 설치된 물가열기 등은 또 얼마나 좋은가.

보는것마다 《야!》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게 하였다.

공동살림방의 푹신한 쏘파에 앉은 어머니는 눈굽을 뜨겁게 적시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딸이 지난 2월에 제14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하였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성대한 환영행사를 마련해주고 은정어린 선물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옥이가 인민체육인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도록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새시대 체육인의 전형으로까지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당에서 천만금에도 비기지 못할 훌륭한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주니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새 집을 받았다는 소식에 접한 그 순간부터 너무도 꿈만 같은 은정에 심장의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는 김동실녀성,

자기는 금옥이를 낳았을뿐이고 딸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소중히 안아 아름답게 키워주고 체육인의 값높은 삶을 가꾸어준 품, 친부모도 상상 못할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는 품은 정녕 당의 품이라고 하면서 이 사랑, 이 은정을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고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는 어머니의 말에 우리의 가슴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진정 이 땅의 체육인들보다 더 행복한 체육인들이 어디에 있을것인가.

살림집들도 훌륭하지만 아빠트에 체육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는 진료소와 식당, 빨래집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도 다 갖추어져있으니 정말 복에 복이 겹쳐흐르는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우리는 7층 4호집에 입사한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유술감독 류주성동무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가 당의 믿음에 의하여 많은 국제경기무대들에 다닐 때에 시시각각 느낀것이 우리 체육인들의 긍지와 행복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는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였다.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참가하던 나날에 그가 당과 조국의 믿음과 사랑속에 꽃피워가는 조선체육인들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수많은 외국의 체육인들이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한다.

오늘은 이렇게 당의 은정이 깃든 훌륭하고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고보니 정말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는 류주성동무의 목소리는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의 심장에 가득차오르는 격정에 대하여 구태여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아마도 그 시각 류주성동무는 당의 품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행복으로 충만된 성장의 길을 더듬어보았을것이며 오늘의 크나큰 감격과 더불어 더욱 다그쳐가야 할 새로운 승리의 길을 신심드높이 새겨안았을것이다.

그의 집을 나서는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절로 터져나왔다.

- 세계여 끝없이 부러워하라, 선군조선의 체육인들을.

사랑의 보금자리의 밤은 어떻게 깊어가는가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밤은 밤대로 뜨겁게 흘러갔다.

조국을 빛내인 체육인들을 행복의 단상우에 높이 세워주는 당의 사랑이 그대로 가닿게 하기 위해 대외건설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 종업원들이 불같은 애국적 열정을 다 바쳐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한 체육인살림집에 제일먼저 입사한것은 세계녀자유술선수권보유자 설경선수와 그 가족이였다.

그날 밤 평양기계대학체육단 유술선수 설경동무는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꿈같은 새집들이를 할 때 정말 생시인가고 하면서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던 부모의 모습, 설경선수와 꼭같이 체육인살림집에 입사한 박금성감독도 한자리에 모여앉아 밤이 지새도록 고마움의 격정을 금치 못하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흘러갔다.

정녕 잠들수 없는 밤이였다.

받아안은 행복이 클수록 보답의 일념이 더욱 끓어오르는 밤이였다.

설경선수는 일기장에 힘있게 새겨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선구자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가리라는 피끓는 청춘의 맹세를.

5층 4호집에 새 생활의 보금자리를 편 국가탁구종합팀 책임감독 김철응가정의 밤도 그렇게 흘러갔다.

새집들이한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앉은 자리에서 김철응동무가 터친 감격의 목소리,

- 이 아버지가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승리를 떨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한것은 응당 할 일을 했을뿐이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너무도 높은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었다. 정말 당의 품이 아니였다면 어찌 우리 가정의 복받은 오늘이 있겠는가.

안해 리춘희녀성은 말하였다.

《지난 기간 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고 돌아와서는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군 하던 남편이 새 집에 입사한 그날 밤에는 너무도 가슴벅찬 당의 은정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은정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해야겠다고, 우리 딸자식들도 당을 알고 조국을 아는 참된 인간들로 키워가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김철응동무는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심장깊이 새긴 이런 고결한 보답의 일념을 안고 이튿날 국제경기장으로 떠났다.

※ ※

이틀째 계속된 새집들이때 우리와 만난 압록강체육단 책임일군인 김문환동무가 한 이야기가 귀전에 쟁쟁하다.

《올림픽금메달수상자들인 엄윤철, 박현숙동무와 력기감독 리춘경동무가 훌륭한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 소식은 지금 우리 체육단 전체 감독들과 선수들의 심장을 세차게 들끓게 하고있습니다.

누구나가 선군시대 체육인된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더욱 절감하고있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의 모든 희망, 모든 꿈이 환희롭게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승리의 금메달로 빛내일 드높은 신심에 넘쳐 드세찬 훈련열풍을 일으켜가고있습니다.》

그렇다.

체육인들을 위한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준 당의 사랑과 은정은 우리 체육인들의 애국의 심장에 더욱 불을 달고있으며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불길을 더욱 활활 지펴주고있다.

이 장엄한 불길속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금메달로 힘있게 떨치는 세계적인 패권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날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반드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체육강국으로 더욱 자랑차게 빛을 뿌릴것이다.

글 본사기자 오철룡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력기선수 엄윤철동무의 가정

유술선수 설경동무의 가정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일군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5일 총련일군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웰남외교전략연구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황 아잉 뚜언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외교전략연구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쌓으신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호지명주석과 함께 웰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평양문화전시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된다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천진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체조, 탁구를 비롯한 24개 종목의 289개 세부종목경기가 벌어진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축구, 배구, 사격, 력기 등 10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한다.

우리 선수들이 참가하는 축구(남, 녀)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축구경기는 전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 남자축구경기

우리 팀은 6일에 일본팀과, 10일에 남조선팀과, 12일에 중국 홍콩팀과, 14일에 중국팀과 경기를 진행한다.

- 녀자축구경기

우리 팀은 7일에 중국팀과, 9일에 중국대북팀과, 11일에 일본팀과 경기를 진행한다.

본사기자

다음주에 진행될 국내체육경기들

다음주에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되게 된다.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경기를 비롯하여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평양과 함흥, 남포 등지에서 계속 벌어진다.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남, 녀)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7일
(남자) 리명수:압록강
평양:월미도
(녀자) 4.25:황룡산
갈매기:만경봉

8일
(남자) 4.25:홰불
만경봉:기관차
(녀자) 청천강:평양
소백수:월미도

9일
(남자) 묘향산:압록강
경공업성:월미도
(녀자) 묘향산:봉화산
리명수:압록강

10일
(남자) 4.25:리명수
평양:홰불
(녀자) 4.25:만경봉
황룡산:평양

11일
(남자) 만경봉:압록강
기관차:월미도
(녀자) 갈매기:월미도
청천강:봉화산

12일
(녀자) 소백수:압록강
묘향산:리명수

한편 평양체육관과 태권도전당에서 전국도대항체육경기가 계속 성황리에 벌어져 종목별순위들이 결정되게 된다. 특히 6일부터 각도에서 선발된 9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씨름경기가 치렬하게 진행될것이 예상된다.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도착

최성영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과 정희경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새세대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김일룡 재일본조선청년동맹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새세대일군대표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천일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 전송하였다.

미국 AP통신사대표단 귀국

개리 프루이트 총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AP통신사대표단이 5일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식료가공공업발전에 이바지해온 자랑찬 로정

인민봉사총국 금성식료공장에서

인민봉사총국 금성식료공장이 창립 60돐을 맞이하고있다.

크지 않은 식료품생산기지로 첫걸음을 뗀 공장은 지난 기간 나라의 식료가공공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왔다.

60년의 자랑찬 력사를 돌이켜보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에서는 뜨거운 감회가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공급하여 식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금방 멎은 때인 주체42(1953)년 10월 6일,

모든것이 재더미로 변한 엄혹한 시기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지의 하나로 이 공장을 창설하도록 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관심속에 첫걸음을 뗀 공장이였다.

200여㎡의 작은 부지면적에 4대의 설비를 차려놓고 생산의 첫 동음을 울린 그날부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나라의 식료가공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웠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그 나날들은 곧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진 나날들이였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보란듯이 실현한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고동친 애국의 박동소리를 느낄수 있다.

불비한 생산설비들을 새로운 기술로 갱신하기 위해 일군들과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여러 과학연구단위를 찾아다녔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기술개건사업에 떨쳐나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발휘해나갔다. 그리하여 훈연로와 진공농축기를 비롯한 10여대의 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완성하였으며 결과 제품의 질이 보다 높아지고 식료가공품의 품종도 늘어났다.

그뿐이 아니다.

생산건물을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전투도 힘있게 벌어졌다. 녀성로력이 대다수인 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야산을 허물어내고 3층짜리 생산건물건설에 달라붙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의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여러가지 식료품생산능력을 더욱 늘여 나라의 식료공업발전에 이바지할 불타는 마음안고 공장종업원들은 짧은 기간에 생산건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웠고 련이어 문화후생시설들과 부식물생산기지도 훌륭하게 건설하였다.

고기가공기지, 두부생산기지, 랭면기지 등 여러가지 식료품생산공정이 련이어 갖추어져 공장의 생산능력은 창립당시에 비해 비할바없이 늘어났다.

그쯘한 생산토대를 갖추고 공장에서는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질좋은 식료품을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원아들을 비롯한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도 보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식료가공공업의 획기적발전의 길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속성식품의 하나인 밀쌈생산기지건설을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보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밀쌈직장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속성식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식료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수도의 곳곳에 밀쌈매대를 내오고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라고 뜨거운 당부도 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문명하고 윤택하게 해주시려고 그토록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식료가공기술에서 패권을 쥘 심장속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그때부터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열의가 더욱 높아졌다.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자면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모두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 공장의 일군들은 해마다 2월과 7월에 새 제품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 과정에 공장에는 지배인으로부터 신입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품평회에 새로운 안들을 내놓고 그가운데서 우수한것은 즉시 생산에 받아들이는 정연한 질서가 세워지게 되였다. 우수한 제품을 내놓은 생산자들에 대한 평가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누가 더 좋은 제품을 창안하여 인민의 호평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놓고 벌어지는 열띤 생산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렬해지고있다.

창립초기부터 빵생산을 전문으로 해온 공장에서 품종마다 서로 다른 맛을 가진 빵을 개발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경쟁은 수십년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빵직장 김옥분동무는 고심어린 탐구로 과일단빵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높고 맛이 독특한 새로운 빵을 해마다 련속 개발해내여 오늘도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자기의 기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직장장 리경순동무를 비롯한 가공직장의 생산자들도 고기가공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고기가공품개발에 온넋을 다 바치고있다.

고기가공품을 어떻게 하면 특색있게 만들겠는가를 늘 사색하던 리경순동무는 말이빵을 보는 순간 고기가공품도 말이식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착상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제품은 맛이 좋고 보기도 좋아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끄는 식료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고기가공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대학습당에서 탐구의 시간을 보내고 수요자들의 의견에도 귀기울이는 과정에 이곳 직장에서는 창설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고기로 마른 가공품도 만들어내고 훈제류, 구이류, 햄류 등도 훌륭하게 생산하고있을뿐아니라 돼지귀, 돼지코 등 부위별고기가공품도 척척 만들어내고있다.

공장에서는 참기름, 들깨기름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참깨강정, 들깨강정도 만들고있으며 최근에는 인민들의 수요에 따라 나물류와 청량음료생산지표도 새로 내놨다.

새 제품개발을 위해 기울이는 공장종업원들의 열정에 의해 6가지 제품생산으로 첫걸음을 뗀 공장은 이렇게 갖가지 빵과 고기가공품, 과자, 사탕, 국수, 만두, 밀쌈 등 식료가공품의 종수를 300여종으로 늘이였다.

공장제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를 굽어보는 공장으로 되게 하자, 이것이 창립 60돐을 맞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사회주의문명의 높이에로 온 나라 인민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식료가공품생산에서도 기적과 변혁을 이룩할 자신만만한 배심을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의 큰걸음을 내짚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전국도대항체육경기소식

여러 종목의 조별련맹전이 끝났다

10월 1일부터 시작한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롱구, 배구, 탁구, 바줄당기기 등 여러 종목의 조별련맹전이 5일에 끝났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이악하게 훈련하여 튼튼히 다진 육체, 기술, 전술적능력과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승부를 겨루었다.

남자롱구종목에서는 대령강팀, 판모봉팀, 수양산팀, 청천강팀이, 녀자배구종목에서는 함경북도팀, 평안남도팀, 황해남도팀, 남포시팀이, 탁구종목에서는 남포시팀, 강원도팀, 황해북도팀, 평안남도팀이, 바줄당기기종목에서는 평안북도팀, 자강도팀, 황해남도팀, 함경북도팀이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한편 이날 공차넣기, 이어달리기, 공안고 머리에 이고 달리기를 비롯한 체육유희오락경기 조별련맹전이 있었다.

경기는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천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든이 훨씬 지난 전쟁로병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위해 늘 마음쓰며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성 일군인 림제동동무와 보건성 제3예방원의 일군들인 리정찬, 한영일동무들입니다.

어느날 그들은 제가 앓는다는 련락을 받고 저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의 병과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 그들은 다음날부터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이다싶이 의사, 간호원들이 저의 집에 찾아와 치료해주었습니다.

저를 극진히 돌보아주는 의료일군들을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의료일군들은 저뿐만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성심성의로 치료해주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저의 집으로 병원검진차가 달려오기도 하고 왕진가방을 든 여러명의 의료일군들이 찾아오기도 하면서 저와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습니다.

일군들은 또 그들대로 저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알아보고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바쳐가는 그들의 진심어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오직 전쟁로병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는것을 사회의 고상한 미풍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란봉구역 긴마을1동 68
인민반 맹세환

자주통일위업의 전진을 추동하는 필승의 무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10.4선언이 발표된지 6년이 되였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삼천리강토가 통일에 대한 환희로 들끓던 그때와는 너무도 대조를 이룬 현 북남관계의 파국적사태에 통탄함을 금치 못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기운을 눅잦혀보려고 아무리 날뛰여도 소용이 없다. 자주와 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강위력한 정신적힘은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할 애국애족의 대명제이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할 민족자신의 위업이다. 조국통일위업의 주체는 우리 겨레이다. 우리 나라의 분렬은 민족내부의 그 어떤 모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 저들의 탐욕적인 리익을 실현하려는 외세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은 마땅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자각하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뭉치면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도 능히 짓부실수 있는 무한대의 힘을 발휘할수 있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침략적인 외세를 철저히 반대배격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게 함으로써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위업을 고무추동한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것을 천명함으로써 해내외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시대의 근본리념인 우리 민족끼리를 안겨주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것을 밝히였다.

6.15공동선언에 의해 천명되고 10.4선언에 의해 재확인된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적대감을 해소하고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확대강화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여온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환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우리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한 북남대화는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되였다. 반세기이상이나 끊어져있던 철도와 도로들이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림으로써 분렬의 장벽에 커다란 파렬구가 생기고 그것은 북남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이 겨레의 가슴마다에 6.15통일시대의 민족정신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해내외에서 민족적화해와 자주통일의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졌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에서 6.15와 8.15를 비롯한 주요기념일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북과 남의 로동자와 농민, 청년학생, 녀성, 교육자, 경제인, 체육인, 언론인, 종교인 등 각계층 동포들은 서로 만나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 등을 통하여 신뢰를 두터이 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 화폭은 그대로 백두에서 한나까지 삼천리강토에 차넘치던 자주통일의 환희였으며 우리민족끼리리념이 낳은 6.15통일시대의 모습이였다.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반영한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강화되고 통일애국운동은 북과 남, 해외의 련대련합투쟁으로 발전하여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의 전성기가 펼쳐졌다.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우선, 민족중시, 우리 민족제일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동족대결이 아닌 민족공조가 겨레의 투쟁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와 련북통일이 대세로 되고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는 대결구도가 형성된것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실현해나갈수 있는 현실적기초로 되였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질화》되여있는 북과 남이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떠벌이던 반통일대결론자들의 궤변은 우리민족끼리리념이 낳은 불패의 생활력앞에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6.15통일시대의 실천을 통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리념으로 뭉치고 통일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극복 못할 난관과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정녕 우리민족끼리리념이야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온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공동의 통일애국리념으로, 진리로 굳게 자리잡고있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간다면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반드시 이룩된다.

우리민족끼리정신보다 더 위력한 투쟁의 무기는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보다 우위에 놓을 애국애족의 리념이 없다는것은 파국과 악화일로를 걸어온 최근 북남관계가 반증해주고있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좋게 발전하여오던 북남관계는 남조선에서 리명박패당의 집권으로 전면파국에 처하게 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배타적》이니, 《폐쇄적》이니 뭐니 하며 모독하고 악랄하게 부정하면서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뛴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삽시에 중단되고 6.15통일시대가 그 이전의 대결시대에로 돌아섰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거세하고 대결기운을 고취하려고 발광하고있다. 보수패당은 민족자주와 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에 배치되게 외세에 극구 아부추종하며 대결정책을 추구하고있다. 외세의 힘을 빌어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해치는 망국의 길이며 두고두고 력사와 민족의 저주를 면치 못할 매국배족행위이다.

현 보수당국은 온전한 북남대화도 못해보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 리명박패당의 비참한 운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교활하고도 음흉한 방법으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피뢰패당은 6.15통일시대에 온 강토를 휩쓸었던 북남화해분위기를 《북에 끌려다닌 결과》로 모독하고있다. 한편 그 무슨 《원칙고수》니, 《북의 변화를 유도》하고 《견인》해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피뢰패당이 말끝마다 《신뢰프로세스》니, 《원칙》이니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판이니 뭐니 하며 모독하고 악랄하게 부정하면서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뛴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삽시에 중단되고 6.15통일시대가 그 이전의 대결시대에로 돌아섰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거세하고 대결기운을 고취하려고 발광하고있다. 보수패당은 민족자주와 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에 배치되게 외세에 극구 아부추종하며 대결정책을 추구하고있다. 외세의 힘을 빌어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해치는 망국의 길이며 두고두고 력사와 민족의 저주를 면치 못할 매국배족행위이다.

현 보수당국은 온전한 북남대화도 못해보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 리명박패당의 비참한 운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교활하고도 음흉한 방법으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피뢰패당은 6.15통일시대에 온 강토를 휩쓸었던 북남화해분위기를 《북에 끌려다닌 결과》로 모독하고있다. 한편 그 무슨 《원칙고수》니, 《북의 변화를 유도》하고 《견인》해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피뢰패당이 말끝마다 《신뢰프로세스》니, 《원칙》이니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판이니 뭐니 하며 모독하고 악랄하게 부정하면서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뛴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삽시에 중단되고 6.15통일시대가 그 이전의 대결시대에로 돌아섰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거세하고 대결기운을 고취하려고 발광하고있다. 보수패당은 민족자주와 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에 배치되게 외세에 극구 아부추종하며 대결정책을 추구하고있다. 외세의 힘을 빌어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해치는 망국의 길이며 두고두고 력사와 민족의 저주를 면치 못할 매국배족행위이다.

지금 피뢰패당의 대결광기는 우리 인민의 생명인 최고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 극단적인 도발망동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보수패당은 저들의 이런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을 그 무슨 《원칙론》에 따른 《새로운 남북관계의 구축》을 위한것으로 정당화하면서 우리에 대해 《변화》니 뭐니 하는 해괴한 나발까지 불어대고있다. 이것은 피뢰패당의 골수에는 오직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해칠 흉심만이 꽉 차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마련되였던 북남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다시금 대결과 긴장국면의 위기사태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민족끼리리념을 부정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반대해나서는 피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광기가 빚어낸것이다.

지금 피뢰패당의 대결광기는 우리 인민의 생명인 최고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 극단적인 도발망동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보수패당은 저들의 이런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을 그 무슨 《원칙론》에 따른 《새로운 남북관계의 구축》을 위한것으로 정당화하면서 우리에 대해 《변화》니 뭐니 하는 해괴한 나발까지 불어대고있다. 이것은 피뢰패당의 골수에는 오직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해칠 흉심만이 꽉 차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마련되였던 북남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다시금 대결과 긴장국면의 위기사태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민족끼리리념을 부정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반대해나서는 피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광기가 빚어낸것이다.

조성된 사태는 온 겨레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조국통일운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를 조국통일운동에 어떻게 구현해나가는가에 따라 조국통일운동의 성패가 좌우된다.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더해지고 조국통일위업성취의 길에는 더 큰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될것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위업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는 지금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모두가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심장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위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기 위한 애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력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승리의 기치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리념으로 뜻과 힘을 합치고 발걸음을 맞춰나갈 때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될것이며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완강히 투쟁해나가는 온 겨레의 애국투쟁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라 설 하

무지막지한 패륜아들의 망동

위인에 대한 경모심은 위인에게 매혹된 인간들의 깨끗한 마음이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절감한 남녘겨레들은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할 민족의 태양이시라고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한 피뢰보수패당은 민심의 지향에는 전혀 아랑곳없이 태양을 따르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에 서슴없이 칼질을 하여 내외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95년 평양을 방문하여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삼가 경의를 표시한 남조선주민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가 온 겨레가 한없이 경모하며 받들어모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 경의를 드린것은 우리 민족이 낳은 탁월한 위인을 흠모하는 남녘의 민심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순결한 례의범절과 인륜도덕의 견지에서 보나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그러니 남조선법원이 과연 무슨 건덕지로 그의 소행을 범죄시할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극악한 대결미치광이들인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문제가 있다.》고 고아대면서 《법원이 북에 고개를 숙였다.》느니, 《주관적인 판단》이니 하며 리성을 잃고 헤덤비고있다. 특히 한기호, 김태흠 등 이 당의 보수떨거지들은 《판결을 취소》하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고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이자들의 악담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며 야단법석대고있다. 피뢰보수패당의 이러한 망동은 동족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다 꿰버린 무지막지한 깡패무리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최대의 악행이다.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숭고한 경의의 표시는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너무나 당연한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죄로 될수 없다.

죄를 따진다면 민족의 대국상때 슬픔에 잠긴 동족의 가슴에 대결의 총부리를 돌려대고 동족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남녘인민들에게 칼부림을 한 피뢰패당의 그 만고대역죄부터 결산해야 한다. 현 피뢰집권세력의 추태는 민족의 대국상때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조문활동을 가차없이 탄압한 김영삼, 리명박역도의 천인공노할 만행과 결코 다를바 없다. 피뢰들이 저들의 그 천추에 씻지 못할 엄청난 죄악에 대해 온 민족앞에 사죄하기는 고사하고 례의와 의리를 지켜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경모의 인사를 드린 주민을 문제시하며 기어코 처형하려고 길길이 날뛰고있으니 이런 천하의 불한당들을 과연 살려둘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짐승만도 못한 야만의 무리들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고 하면서 분노의 치를 떨고있다.

피뢰보수패당의 이번 망동은 최근 절정에 달하고있는 북남관계파피책동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남조선피뢰들이 근 20년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문제시하며 팡기를 부리는것은 현 북남관계의 위기를 악용하여 정세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차단하고 대결을 격화시켜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고 한사코 발광하는 그들의 흉악한 속심을 여실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지금 피뢰패당은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심과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로 하여 높아가는 통일기운앞에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있다. 바빠맞은 피뢰보수패당은 이 사건을 코에 걸고 북남관계를 격화시켜 위기를 모면하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동족대결에만 피눈이 되여 날치는 피뢰패당의 망동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의 근본장애이다.

태양을 따르는 민심의 지향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피뢰집권세력은 저들의 반민족적, 반인륜적악행으로 차례질것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 통치위기의 심화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복 은 희

되살아난 《유신》독재의 망령

남조선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날로 첨예화되는 속에 피뢰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이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다. 현 피뢰집권자는 과거 군부독재시대의 죄악을 공공연히 찬미하고 력사를 외곡하면서 민주와 정의에로 향한 력사발전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대끌에서 대가 나고 싸리끝에서 싸리가 나온다고 그는 집권전부터 《〈10월유신〉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였다느니, 《민주주의가 좀 억압당한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느니 하는 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으면서 《유신》독재를 정당화하였다.

이런 《유신》독재자의 후예들이기에 현 피뢰집권세력은 각계의 날로 높아가는 항거기운과 반《정부》투쟁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온갖 교활하고 음흉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한편 진보세력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기 위해 파쇼적폭압의 칼을 더욱 사납게 휘둘렀다. 파쇼광들은 《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을 휘두르며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린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의장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며 살벌한 탄압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투쟁에 나선 진보세력들을 《종북》감투를 씌워 탄압하는 파쇼적망동을 부렸다.

피뢰들의 폭압광기는 국제해커범죄집단까지 부추겨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공화국의 여러 인터네트홈페지들을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훔쳐낸 홈페지가 입자명단들에 기초하여 《북의 간첩》, 《종북세력》을 색출한다고 하면서 통일애국세력말살에 기승을 부린데서 절정에 달하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피뢰집권세력은 통일운동자체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파쇼악법제정놀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이러한 류례없는 폭압소동은 극악한 파쇼통치로 의로운 통일애국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한 《유신》독재시기를 그대로 방불케 하고있다.

최근 남조선 각계를 격분시키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피뢰보수패당이 《유신》독재부활책동에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파쇼독재 《정권》을 연장시킨 용납 못할 정치모략사건이다. 그 내막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피뢰집권자는 자기는 《모른다.》느니, 《전 〈정권〉의 일》이라느니 하고 외면하면서 아닌보살을 하고있다. 또한 정보원해체를 반대하면서 기만적인 《정보원개혁》놀음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피뢰패당이 정보원을 발동한 저들의 반민주적폭거를 합리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유신》독재부활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얼마전 피뢰당국이 조작한 통합진보당의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도 《유신》독재부활책동의 연장선에서 터져나온것이다. 폭로된것처럼 피뢰당국은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경찰서와 무기고들을 습격》하고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을 파괴하여 사회의 혼란》을 일으킬 《음모》를 꾸몄다고 고아대면서 대대적인 체포, 수색, 압수소동을 벌리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지어 이들과 《북과의 련계고리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집중하고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 공화국과 억지로 련결시키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종북》소동의 광풍이 다시금 사납게 몰아치고있다.

남조선에서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은 《유신》독재시기 때없이 터져나왔다. 《유신》독재자는 《정권》유지를 위하여 각종 수많은 《간첩사건》들을 조작하였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인사들과 단체들을 《반〈정부〉음모죄》, 《내란선동죄》에 걸어 닥치는대로 체포처형하고 해산시키였다. 남조선의 현실은 바로 그때를 방불케 한다. 이번의 《내란음모사건》은 《유신》독재의 바통을 넘겨받은 남조선의 현 파쇼독재세력이 아니고서는 감히 조작할수 없는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되살아나는 〈유신〉독재의 망령》, 《〈유신〉독재에로의 회귀》 등의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피뢰집권세력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피흘려 싸워온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력사발전을 가로막고 독재시대를 되살리는 파쇼적악행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지금과 같은 살벌한 파쇼공세가 계속될 경우 어떤 험악한 사태들이 빚어지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지나온 《유신》독재시대의 류혈적인 참상이 잘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몰서리치는 《유신》독재가 되살아나는것을 견결히 반대하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 지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항거의 초불은 《유신》독재부활을 결코 용납치 않으려는 민심의 강렬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파쇼와 독재가 없는 민주화된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그런데 지금 현 피뢰집권세력이 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성과마저 짓밟으면서 《유신》독재부활에 미쳐날뛰고있으니 어찌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겠는가.

민주화를 말살하며 독재통치에 매달리는자들은 언제나 실패를 면치 못하는 법이다. 피뢰독재자들의 비참한 운명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피뢰보수패당은 사태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진보민주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민중의 의사를 거스르는 《유신》독재부활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라 영 국

남조선대학생 8 000여명 교육조건개선을 요구하여 투쟁

남조선의 교육대학생련합소속 대학생 8 000여명이 9월 28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피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단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현 집권자가 선거기간 교육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고서도 이를 리행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오히려 교육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교육을 돈벌이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악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정부》가 하루빨리 공약리행에 나서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친선관계발전의 힘있는 추동력

오늘은 우리 나라와 중국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된지 64돐이 되는 날이다.

1949년 10월 6일 갓 창건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설정은 항일의 혈전장에서 뿌리내린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킬수 있게 한 획기적사변이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세월 두 나라 인민은 조중친선의 거대한 생활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외교관계설정후 지난 60여년간 조중 두 나라는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호상 긴밀히 지지협조하면서 친선의 뉴대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다.

조중친선의 뿌리는 깊고 억세다. 조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이웃만이 아니다.

피로써 맺은 친선!

조중 두 나라 인민이 공동의 구호처럼 외우는 이 말속에는 항일전쟁과 중국동북해방전쟁,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피흘리며 싸운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혁명적의리와 전투적친선의 정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전우보다 더 굳건하고 공고한 관계는 없다. 이런 특별한 관계로 이어졌기에 두 나라는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 할수 있는것이다.

두 나라 인민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사회주의건설과 반제자주, 평화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여왔다. 일찌기 항일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그 력사적뿌리가 마련되고 피어린 전쟁의 포화속에서 굳건해진 조중친선의 대가 변함없이 이어진것은 매우 의의깊은 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친선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오늘 조중친선은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 중국을 방문하시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두 당,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의 심혈과 로고가 어려있는 귀중한 조중친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추대되신 후 공식적인 첫 대외활동으로 중국의 당대표단들을 만나주시였다.

얼마전 전승 6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성흥혁명사적지와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중친선의 화원속에 두 나라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교류와 협조가 확대발전되고있다. 이것은 두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중국인민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적안정과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중국의 영향력과 대외적지위가 높아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중국에서 모든 일이 잘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형제적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유익하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내린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더욱 만발할것이다.

전 영 희

조일평양선언발표 11돐에 즈음하여 일본에서 집회 진행

조일평양선언발표 11돐에 즈음하여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일조국교정상화 조기실현을 요구하는 집회가 9월 17일 일본 오사까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오사까시민들, 재일조선인들이 참가하였다.

일조국교정상화 조기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련대 오사까공동대표는 연설에서 조선정전협정체결 60돐에 즈음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이 적극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번 집회를 일본정부의 대조선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것을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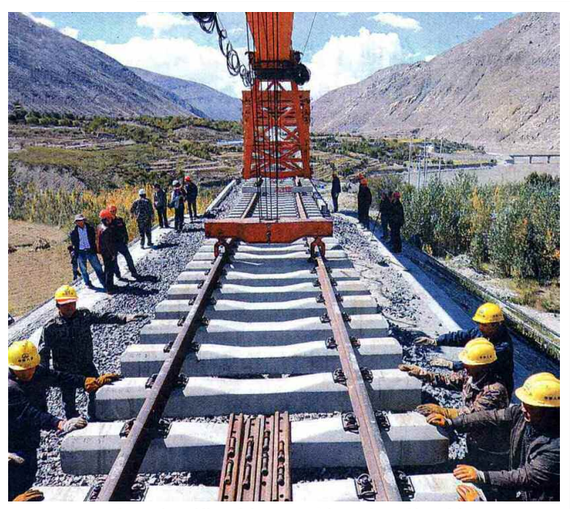
집회에서는 잡지 《일〈한〉분석》 편집장이 《조선반도의 현정세와 일조국교정상화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극복되고있는것은 조선의 드림없는 평화정책과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방문인상을 피력하면서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조선인민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락관에 넘쳐있었다, 전쟁도발을 계속하는것은 바로 미국이다고 까밝혔다.

조선과의 관계개선에서 기본은 일본의 과거청산이라고 하면서 그는 일본이 민족배타주의를 버리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나서도록 국제적인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수상에게 보내는 요청문이 채택되였다.



중 국 에 서 철 도 건 설

여러 나라들 협조

싱가포르와 우루과이가 2일 항공운수부문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보다 앞서 9월 30일 중국과 인디아는 두 나라 국경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물가 인상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유럽동맹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9월에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식료품가격만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국회내 의견대립으로 정부활동 부분적으로 중지

미국에서 의료보험개혁안을 둘러싼 국회내 의견대립으로 주요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활동이 1일부터 부분적으로 중지되였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가 새 회계년도에도 업무활동을 계속할수 있게 하는 어떠한 합의도 이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부활동의 부분적인 중지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종사하고있는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정부의 활동이 중지되면 엄중한 경제적후과가 초래될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시기에도 이로 인해 경제가 심히 파괴되였다고 말하였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기온 계속 오를 전망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 기온이 계속 상승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최근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21세기말까지 지구온도가 최저 0.3℃, 최고 4.8℃까지 오를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바다물면이 최소 26cm, 최대 82cm 상승할것이라고 한다.

ㄱ-31156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